



포구 1995, 안일성 / 건축사사무소 아키안

사각의 콘크리트에 갇힌 반복과 변화없는 생활의
 만네리즘을 탈피코저 함이라 창밖의 컨테이너 가득실은
 활기찬 무역항이 아닌 비릿한 어항과 산골풍경은
 마음속의 고향을 그리워함인 것이리라
 여행 안내책자의 지도길을 따라 머문 곳이
 가장 고갯길을 넘어 해멘 곳,
 언젠가 스쳐지난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잡히는 대로 컬러펜으로 낙서를 해 보았다.
 갓잡아 온 싱싱한 횡감 한접시 욕심도 내보며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려 보았다.